

buddhanews.com

사랑을 하는 것도 진짜 착을 다 떼고 사랑하세요!

25면에서 계속

거나 학비를 못 낸다 한다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본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요. 정말 여기에서도 조금만 더 자리가 잡히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가지게 되겠지요. 앞의 것을 해결치 못하고 뒤의 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도 집이 지금 학비를 못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저 먼 데 것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바로 앞의 것부터 해 나가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주들이 많이 들어와도 없는 신도님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선원의 스님들은 정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주간 법계에 있는 거니까요. 양심입니다. 여러분이 시주를 했어도 날 준 게 아닙니다. 왜? 내가 날 위해서 받은 게 없으니까요.

또 제사, 이거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내 버리죠. 김삿갓도 이렇게 말을 했죠. 가서 밥을 한 그릇 얻어먹고는 그 집의 소원을 들어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었으니 상을 잘 차려 놓고 지내야 할 텐데 천도 좀 시켜 줄 수 없습니까?" 하니 김삿갓도 그랬대요. "허허,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과일 파는 집이며, 뉘 제를 파는 집이며, 이 세상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라고요. 만약에 제사 지내는 사람이 그냥 상에 차려 놓는 것만 알고 지내 준다면 영가 영령들도, 혼백도 그 상에 차려 놓은 것만 알 수밖에 없어서, 그 외에는 더 가질 수도 없고 더 먹을 수도 없고 뉘새 말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를 등글러서 떡 하나를 놓고, 떡이려면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렇게 놓고 지낸다면 그 혼백은 그것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 우주 천하를 다 가지고 계신 산 부처님이, 마음속에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만약에 천도를 시켜서 조상들이 그 마음속에 같이 한 자리를 할 수 있다면 조상들도 역시 부처님이 되시니 얼마나 자손들에게 좋은 결과를 갖다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상에 잘 차려 놔서 한 상이 아니라 해도 세 상밖에 더 차리리까. 이 세상을 전부 친다면 그까짓 세 상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씩으면 없어질 그런 과일, 씩으면 없어질 떡, 먹고 똥 되는 그 떡, 아니, 그런 거 있어 봤던들 뭘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천도 시키려면 저 초무 스님한테 가서 상의드려서 해요." 그리고 초무 스님한테는 "가난한 사람은 조금 받고 좀 돈 있는 사람한테는 넉넉히 받아서 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장학금도 줘야 하고 하니 말이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하는 말이 "전 차리는 것보다도 스님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조상한테 다 주시고 같이 한 자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돈 삼백만 원을 갖다 주면서 그런 소릴 떠억 하고는 그냥 절을 하고 뺨하니 달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겁니다. 차려서 목탁을 치면 그 사람들 보게 해 줬으니까 그걸로써 끝나는 거지만, 이걸 그냥 무조건 갖다 놓고 재 지내는 것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갖으니 정말이지 더 깊은 정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이 더 귀한 것입니다. 오신통은 여러분 안에 재료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것에 착을 두지 않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오신통도 벗어나고 똥똥이도 벗어나고 우주도 벗어나서 자유자재하면서, 불바퀴를 굴리면서 여러분은 아주... 지금 늙어도 늙은 게 없고, 애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하하하... 또 지금 애는 늙어 갈 테니까 그렇고요.

두서없이 이런 말 하는 것 같겠지만 체계가 없다 할지라도 진실로써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데도 체계가 없이 고정됨이 없이 사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급 탄 거 그냥 계획도 없이 마구 써 버리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또 절에 가져 온다고 생각도 없이... 먹지도 못하면서 다 갖다 놓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기 성의를 다해서 하시면 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갖다 놓을 게 없어서 방에 쉰 것을 받들 갖다 놓고 세를 못 들었답니다. 그래도 갖다가 놓는 것만 좋아서 웃으면서 '보증을 내고 사글세라도 들어가지.' 하고 가다가 신문지가 들들 떨어 있는 거를 봤답니다. '아이고, 사글세라도 들어가면 이걸로 구멍이라도 막아야지.' 하고 집어 들고선 퍼 보지도 않고 가서 웃으면서 '신문지 잘 꺼져서 뭐라' 하고선 이렇게 퍼 보니까 돈이 한 신문지 싸여 있더라고요. 그러려면 발굽이 되고도 남는데 그걸 가지고 또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네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쓰라고 준 거야. 이 돈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볼 때 여유 있는 사람 같다. 그러나 너 갖다가 써라." 이렇게 했더니 그거하고 같이 해서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그 래 가지고 지금은 큰 아파트를 지니고 삽니다.

또 우리 선원에 다니면서 진정으로 믿었던 소금 장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금을 이고 다니면서 팔던 사람인데 남편은 미쳐서 그냥 막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또 자기는 무거운 소금을 이고 다니다 자궁암에 걸려서 그렇게 애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 부부가 자식들을 사 남매 낳아 놓고, 자기 집도 없었죠. 방 두 개를 사글세로 들어살면서 다니던 사람이 어떻게 정성을 들인 줄 아십니까? 소금을 이고 가다가 시간이 없는데도 절에 와서 소금 한 공기쯤 먼저 떠 놓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님, 스님! 저 자궁암 좀 낫게 해 주시고 정신없

기에 다 직결돼 있으니까 모든 걸 종합해서 주인 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겨 놓고 그렇게 사십시오. 앞으로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이고 안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좋게 됐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가 자기한테 '감사해! 당신밖에 이렇게 즐겁게 해 줄 수 없어!' 하고선 놓고, 안될 때에도 질병 문제라면 '당신밖에 병을 낫게 할 수 없어!' 그리고, 가장 문제라면 '당신밖에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없어!' 하고 거기 놓을 때 바로 그렇게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체가 없는 거니까요. 광명과 같은 전력과 같은 자력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자력과 전력과 광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력과 전력이 한데 합쳐지고 부력이 되니까 바로 통신력도 생기고 거기에 서 광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밝음이 일어난다 이



진짜로 사랑한다면 자비롭게 하십시오 진짜로 사랑한다면 봐 주십시오

또 날 위해서 먹은 것도 없었고요. 나는 하루 동안 내가 일할 만치 하면서 보리밥 한 숟가락 얻어먹고 있었지. 얻어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밥 내가 먹고 있는 거죠. 내가 부지런히, 진정코 진실히 일하고 여러분한테서 받아먹는 거니 어찌 내 밥이 아니겠습니까? 일을 하고 먹어야 내 밥이요?

그리고 일을 해서 먹고도 정말이지 거기에서 무지하게 남는 것을 여러분한테 그냥 무주상 보시 하는 거 아닙니까? 일 전 한 푼이라도 여러분한테 개겐다면 아마 저 하늘에서, 법계에서 그냥 있지 않겠지요. 내 양심, 내가 아는 것을 우주간 법계에서 아니니까요. 어느 사람이 취직을 하려고 뇌물을 주는 데 안 받으니까 "아무도 없는데 누가 받은 줄 안다고 그러느냐?" 하니가 이렇게 말했 다죠. "여보게, 자네가 알고 내가 알잖나.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받을 수 있나? 자네가 알고 내가 아는 것은 보이지 않는 데의 마음들이 다 알게 돼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받나? 내가 힘이 있으면 할 거고 힘이 없으면 못하겠지, 이런 걸 받고 한다면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나." 그리고선 쫓아 버리고 자기가 입들혀 해서,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취직을 시켰다 합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의 얘깁니다. 그러니 방황하지 말고 항상 내 주인공과 스님 주인공이 들어 아니니까 믿고 마음공부 열심히 하세요. 이 모든 것이 인으로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한 상 차려 놓은 것만 알게 할 게 아니라 전체를 알게 해서 그 혼백한테는 대도를 이룰 수 있게 하고, 또 후대에 그분들이 다시 손자 또 증손자로 참, 큰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상들이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얕은 소견으로 차려 놓습니다. 어떤 절에 가 보면 천도를 시키는 데 사물을 밤새도록 합니다. 그렇게 차려 놓고 스님네들이 번갈아서 삼 일을 지냅니다. 예전에 보니가 그래요. 이십 대 한창 때의 얘깁니다.

그런데 그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창 지혜를 얻으려고 무척 애를 땀니까요. 그런데 그 후에 알았습니다. 어느 스님에게 떠억 돈을 갖다 놓고 절을 하면서 천도를 시켜 달라고 하고는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스님, 천도는 언제 시킵니까?" 하니가 "천도는 벌써 시켰느니라. 안 시켰다고 생각하면 이 돈을 가지고 가져라." 그랬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은 천도를 시켜 달라고 준 돈을 가지고 장 보러 가서 보니가, 일가죽이 그냥 내뒀겨 가지곤 당장 방 한 칸 얻을 돈이 없어서 자식들을 울망졸망 데리고 거리에 나왔던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재비를 다 쥐 버리곤 그냥 설렁설렁 올라오셨는데 "스님, 재물 흥정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가 "재사는 벌써 잘 지냈네." 이러더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는 사이 없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이 더 귀한 것입니다



는 애들 아버지도 낫게 해 주세요. 당장 애들도 먹여야 하고 남편도 먹여야 그 병을 낫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 이렇게 영치가 아파도 지금 끌고 갑니다. 하혈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열골은 백지장 같은데 그렇게 하고 갈 때 나눈요, 마음이 찡하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만 그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궁암은 저절로 낫고 남편도 저절로 낫고, 10년 동안이나 못했던 월공 일을 하게 됐고, 그 보살은 소금 팔던 걸 놓고 김밥을 써서 어느 회사에 맡겼습니다. 사람을 몇 두고선 그렇게 했는데 인연은 부자가 돼서 큰 집 사서 살고 아들도 다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또 대학 졸업한 놈도 있고 대학원 나가는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의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잘되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잘되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잘된 겁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오고 감이 없어도 오고 가는 그 빠져서고 눈물 어린 그 마음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겁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과거로부터 자기를 끌고 다니던 불성, 가련한 자기 의식 자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믿고, 바로 현재 의식이 자기 과거에 살던 의식을 믿고... 다 주인공이라 칭한 것이니까요. 고정됨이 없이 잘 나가고 우주의 근본이 인간 마음의 근본이고 거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도 바로 자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발을 땅에 딛고 다니는 겁니다. 바깥에서는, 이 흙에서는 흙대로 자력으로 끌어 잡아당기고, 우리는 우리대로 자력으로 끌어 잡아당기고 때문에 여기 붙는 겁니다. 이런 도리를 우리가 체합을 하고 들어가면 천체 물리학이나 천문학이나 지리학이나 의학이나 천체가 종합돼 있다는 걸 알기 것입니다. 이런 이력을 지어 놓는 것도 우리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력을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서없이 여러분 앞에 애길 했지만 여러분은 자기 마음 번치 말고, 수역검을 거쳐 오면서 미생물에서부터 끌고 나온 자기 주인을 진짜로 믿으십시오. 그러려면 정말이지 자기 죽이는 법이 없이 끌고 갈 겁니다. 주인공이 자기와 들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법회 의식을 마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러니 저러니 말 많은 것은 모두 놓고 우리 같은 도반으로서 꼭 열심히 해 봅시다.

※위 법문은 1989년 9월 24일 제주지원 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사말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9월 24일(음) 대한불교진언종 종정 석암대중사의 종정장을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제방의 큰스님들, 관계요로 사회 각계 각종 인사들, 그리고 사부대중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또한 조화, 조전 등으로 조의를 표해주시는 각계 인사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에 매진하겠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올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올림을 널리 해량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불기 2552(08)년도 9월 30일

대한불교진언종 종리원장유삼합창
대한불교진언종 종정 석암대중사 문도회 합창

대한불교진언종 종정 석암대중사 49재 일정

- ◆ 제1재 : 불기2552(08)년 9. 26. 오전 10시 부산 진광사
- ◆ 제2재 : 불기2552(08)년 10. 3. 오전 10시
- ◆ 제3재 : 불기2552(08)년 10. 10. 오전 10시
- ◆ 제4재 : 불기2552(08)년 10. 17. 오전 10시
- ◆ 제5재 : 불기2552(08)년 10. 24. 오전 10시
- ◆ 제6재 : 불기2552(08)년 10. 31. 오전 10시
- ◆ 제7재 : 불기2552(08)년 11. 7. 오전 10시 경주 불국사 회향

■ 문의처 : 051)753-1504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진광사)
051)809-5789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진광사(종리원))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역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2009년의 신수 비결이 출간 되었습니다.

"호타비결 = 신수비결"

- 2009년 개인의 사주를 감정하여
- 직업, 재물, 사업, 이성 운과 인연
- 성적 및 친학 운,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나 운세를 바로 볼 수 있고
- 정확하여 적중율이 높습니다.

정가 25,000원.

"이름 대사전"

- 대법원 선정 한자만 사용하여 이름 풀이까지 되어 있고,
- 320여개의 성씨별로 삼원, 수리, 음령 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범명, 상호,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정가 : 50,000원

"호타 비결전서(상·하)"

- 일년이면 최고의 프로그 될 수 있는 비서.
- 한글 전용으로 누구나 쉽게 독할할 수 있음.
- 전화 질문 및 상담해 드림. 정가 : 50,000원

호타암 주지원공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